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주제 제2622호】주제 107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 필승의 신심드높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나가자

### 증산돌격운동으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 남포시 당 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증산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투자, 연속투자, 밀착투자를 같이 합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 5개년 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으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최전선돌격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시안의 당조직들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향인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가 늘어 나고있다.

남포시에서부터 본공장과 강서 분공장에서서도 인민경제계획을 힘있게 달성해 수행한 기록들이 늘어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중요공장, 기업소의 기공예술평단원들, 녜명예술평단원들이 당의 의도가 민중에게 반영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하여 새것을 생산하여 리용되도록 함으로써 일대기대에 혁명적열정이 차남치게 하고 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 5개년 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으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최전선돌격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 석탄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지원

#### 성, 중앙기관들에서

은 나라가 석탄전선지원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성, 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지 탄광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있다.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11월에도 여러 성, 중앙기관에서 많은 량의 자재와 지원물자를 생의것 마련하여 석탄전선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득 담아 힘입는다.》**  
석탄전선지원과 대외경제성, 목재수출, 철도수출과 유엔지원국들의 일꾼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헌신하여 헌신하여 석탄전선을 지원하고 있다.

### 삼지연돌격운동으로 공장건설 마감단계

삼지연돌격운동으로 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 추진되고있다. 군인건설자들과 삼지연군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힘입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건축공사과 끝나고 내부공사와 설비조립, 지대정비 및 원형조성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자고 결심한것만큼 모든 대상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일제기 광강도의 소문난 특산물인 돌출을 가지고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대하여 하시시였다.

삼지연군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편익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삼지연군의 돌격대원들은 기본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반적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틀과구를 열아놓았다.

### 다음해 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하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자면 농사에 모든 력량을 집중시켜,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제령벌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 박차가 하고있다.

군현농장정령위원회일꾼들은 현장기술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지도는 현장기술지도에 맞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삼지창, 복지, 케미컬농업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 다음해농사차비의 양에서 내달리고 있다.

에비가 있다는것을 명시한 농업근로자들은 자급비료를 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성실한 땅을 바치고 있다.

### 수천m의 방조제 건설

환해남도간석지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드세한 공적건설을 벌이면서 4구역 기본방조제와 3구역 2호중간방조제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환해남도간석지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은 공사작업과 지취를 파하고도 해나갔다. 방조제의 지도팀에 일꾼들은 적시조립과 투취장을 주리직방항으로 정하고 노력조직과 지취를 짜고들어 전진적인 건설속도를 높여 나갔다.

환해남도간석지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은 공사작업과 지취를 파하고도 해나갔다. 방조제의 지도팀에 일꾼들은 적시조립과 투취장을 주리직방항으로 정하고 노력조직과 지취를 짜고들어 전진적인 건설속도를 높여 나갔다.

환해남도간석지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은 공사작업과 지취를 파하고도 해나갔다. 방조제의 지도팀에 일꾼들은 적시조립과 투취장을 주리직방항으로 정하고 노력조직과 지취를 짜고들어 전진적인 건설속도를 높여 나갔다.

### 중공강생산공정 새로 확립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은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은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은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은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 방물식관수설비조립 결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중심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방물식관수설비조립 결속 고산과수조합농장 능력확장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은 1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방물식관수설비를 세워 목표에 힘입어 우정을 벌여 이미 500여평에서 방물식관수를 실현한 기세를 벌려 여러공작을 벌이고있다.

방물식관수설비조립 결속 고산과수조합농장 능력확장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은 1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방물식관수설비를 세워 목표에 힘입어 우정을 벌여 이미 500여평에서 방물식관수를 실현한 기세를 벌려 여러공작을 벌이고있다.

방물식관수설비조립 결속 고산과수조합농장 능력확장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은 1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방물식관수설비를 세워 목표에 힘입어 우정을 벌여 이미 500여평에서 방물식관수를 실현한 기세를 벌려 여러공작을 벌이고있다.



순천탄광기제공장에서 중공강생산공정 확립을 위하여 힘쓰는 일꾼들

방물식관수설비조립 결속 고산과수조합농장 능력확장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의 열의



#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온 보람찬 한해

##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를 펼쳐가시며

우리 조국정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뚜렷한 한해를 새겨 주며 107(2018)년. 공화국장건 일흔일을 맞이한 뜻깊은 이 해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승리의 모습이 있다.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을 놓치면 승자가 되고 과학기술을 놓치면 패자가 된다.**』

그러고서 새로운 1월 11일, 우리의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다.

이날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에서 지치지 않는 창조로 살아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마디에 그 어떤 전기공과에서도 오직 조선로동당 만을 믿고 조선로동당의 붉은 깃발아래에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해나갈 신념의 기동도 역량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찰 대원에게 한시미 국가과학원은 시력자리의 교향곡이라는 파란한 평야로 안겨주시었다.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한 현지지도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토를 열고 최후승리를 일망거머쥐는 조선로동당의 최고한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금 파산한 참으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 발전에 계속 선자적인 힘을 쏟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드물었던 과학기술발전 사업은 그 때로부터 몇달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더욱 뚜

렷이 천명되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요구를 높이 들고 경제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이 펼쳐나갔다.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으로 비약하기 위한 두류의 불길들 더욱 거세지게 지켜주시었다. 그의 세심한 지도밑에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연구개발체제가 보다 정연하게 세워지고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본원이 새로 조직되어 나노산업창설을 추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연구원 발라골연수소, 강령이 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원들이 새로 훌륭히 일떠섰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이 적극적으 마다 되었다.

인정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보이러와 라틴의 분산형조종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선진 수위의 중유를 쓰지 않으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학발전소들에 우리 식의 무공유화학 기술을 확대도입할 수 있는 전망을 얻어놓았다.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산소열연용광로에 대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망과 설비를 확립하고 용광로용유체계를 실현하였으며 산소열연용광로에서 나오는 최후의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진동정련기술을 도입하여 강철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료에 의거하여 광관생산을 상용화할 수 있는 도해를 마련하였다. 중유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풍부한 수리력을 인발강관과 내화벽돌을 생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초를 타고 소망다 품종 교질함금생산물공정을 확립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교질함금강종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저공위험도로로부터 급유가 높은 당장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다.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더디고 오르기 위한 힘찬돌파관이 힘있게 벌어졌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보급담당 대규모 자기조직체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언어, 화상처리 및 음성인식기술, 통합정보보안기술, 병원 컴퓨터에 의한 구름계산체, 고분해능의 농업기상정보체, 대용량분류비모체, 의료보상자재체 등 정보 및 통신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무잡근터, 농용나노기술성막, 나노박막...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많은 학술문헌을 세계적으로 천원하는 국제과학기술잡지에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정보를 파사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과학자들이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최우수학자로 등록되었다.

지역자랑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으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길이 우리의 강국건설을 위한 비약의 지름길이었다.

바로 이것이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이 다시금 심장같이 간직한 철리이다.

본사기자 권영희

## 국가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관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보급담당 대규모 자기조직체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언어, 화상처리 및 음성인식기술, 통합정보보안기술, 병원 컴퓨터에 의한 구름계산체, 고분해능의 농업기상정보체, 대용량분류비모체, 의료보상자재체 등 정보 및 통신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무잡근터, 농용나노기술성막, 나노박막...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많은 학술문헌을 세계적으로 천원하는 국제과학기술잡지에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정보를 파사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과학자들이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최우수학자로 등록되었다.

국가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관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보급담당 대규모 자기조직체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언어, 화상처리 및 음성인식기술, 통합정보보안기술, 병원 컴퓨터에 의한 구름계산체, 고분해능의 농업기상정보체, 대용량분류비모체, 의료보상자재체 등 정보 및 통신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무잡근터, 농용나노기술성막, 나노박막...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많은 학술문헌을 세계적으로 천원하는 국제과학기술잡지에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정보를 파사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과학자들이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최우수학자로 등록되었다.

나노기술에 기초한 계측기산소분석기는 화학발전소들에서 현존발견능력을 보장하면서 도 많은 식전을 절약할 수 있는 성과였으며 하여 주목되고있다. 강행로유체축기의 전력계통조교파라피동도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전력계통운영을 안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이다. 특히 자연에너지에 의한 양이온전력생산체와 공역양수기 《중앙-13》, 메탄가스생태온실의 건설과 가스생성 및 리용기술을 비롯하여 자연에너지의 개발 리용과 관련한 국가과학기술성과도 여러건 있었다.

석탄공업부문에 축적된 지식료류전자, 광원유기화학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마디에 그 어떤 전기공과에서도 오직 조선로동당 만을 믿고 조선로동당의 붉은 깃발아래에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해나갈 신념의 기동도 역량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찰 대원에게 한시미 국가과학원은 시력자리의 교향곡이라는 파란한 평야로 안겨주시었다.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한 현지지도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토를 열고 최후승리를 일망거머쥐는 조선로동당의 최고한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금 파산한 참으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 발전에 계속 선자적인 힘을 쏟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드물었던 과학기술발전 사업은 그 때로부터 몇달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더욱 뚜

렷이 천명되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요구를 높이 들고 경제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이 펼쳐나갔다.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으로 비약하기 위한 두류의 불길들 더욱 거세지게 지켜주시었다. 그의 세심한 지도밑에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연구개발체제가 보다 정연하게 세워지고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본원이 새로 조직되어 나노산업창설을 추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연구원 발라골연수소, 강령이 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원들이 새로 훌륭히 일떠섰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이 적극적으 마다 되었다.

인정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보이러와 라틴의 분산형조종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선진 수위의 중유를 쓰지 않으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학발전소들에 우리 식의 무공유화학 기술을 확대도입할 수 있는 전망을 얻어놓았다.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산소열연용광로에 대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망과 설비를 확립하고 용광로용유체계를 실현하였으며 산소열연용광로에서 나오는 최후의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진동정련기술을 도입하여 강철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료에 의거하여 광관생산을 상용화할 수 있는 도해를 마련하였다. 중유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풍부한 수리력을 인발강관과 내화벽돌을 생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초를 타고 소망다 품종 교질함금생산물공정을 확립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교질함금강종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저공위험도로로부터 급유가 높은 당장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다.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더디고 오르기 위한 힘찬돌파관이 힘있게 벌어졌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보급담당 대규모 자기조직체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언어, 화상처리 및 음성인식기술, 통합정보보안기술, 병원 컴퓨터에 의한 구름계산체, 고분해능의 농업기상정보체, 대용량분류비모체, 의료보상자재체 등 정보 및 통신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무잡근터, 농용나노기술성막, 나노박막...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많은 학술문헌을 세계적으로 천원하는 국제과학기술잡지에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정보를 파사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과학자들이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최우수학자로 등록되었다.

국가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관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보급담당 대규모 자기조직체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언어, 화상처리 및 음성인식기술, 통합정보보안기술, 병원 컴퓨터에 의한 구름계산체, 고분해능의 농업기상정보체, 대용량분류비모체, 의료보상자재체 등 정보 및 통신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무잡근터, 농용나노기술성막, 나노박막...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많은 학술문헌을 세계적으로 천원하는 국제과학기술잡지에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정보를 파사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과학자들이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최우수학자로 등록되었다.

## 첨단기술 제품들이 늘어나고

나노기술에 기초한 계측기산소분석기는 화학발전소들에서 현존발견능력을 보장하면서 도 많은 식전을 절약할 수 있는 성과였으며 하여 주목되고있다. 강행로유체축기의 전력계통조교파라피동도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전력계통운영을 안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이다. 특히 자연에너지에 의한 양이온전력생산체와 공역양수기 《중앙-13》, 메탄가스생태온실의 건설과 가스생성 및 리용기술을 비롯하여 자연에너지의 개발 리용과 관련한 국가과학기술성과도 여러건 있었다.

석탄공업부문에 축적된 지식료류전자, 광원유기화학

국가적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을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과학기술성으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관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보급담당 대규모 자기조직체제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언어, 화상처리 및 음성인식기술, 통합정보보안기술, 병원 컴퓨터에 의한 구름계산체, 고분해능의 농업기상정보체, 대용량분류비모체, 의료보상자재체 등 정보 및 통신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무잡근터, 농용나노기술성막, 나노박막... 과학고육부문의 과학자들은 많은 학술문헌을 세계적으로 천원하는 국제과학기술잡지에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정보를 파사하였으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3명의 과학자들이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최우수학자로 등록되었다.

나노기술에 기초한 계측기산소분석기는 화학발전소들에서 현존발견능력을 보장하면서 도 많은 식전을 절약할 수 있는 성과였으며 하여 주목되고있다. 강행로유체축기의 전력계통조교파라피동도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전력계통운영을 안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이다. 특히 자연에너지에 의한 양이온전력생산체와 공역양수기 《중앙-13》, 메탄가스생태온실의 건설과 가스생성 및 리용기술을 비롯하여 자연에너지의 개발 리용과 관련한 국가과학기술성과도 여러건 있었다.

석탄공업부문에 축적된 지식료류전자, 광원유기화학

#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개척자들

### 각지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격대에서

경제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과학기술성장을 중시하는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사업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며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올해에 들어와 수년간의 단위가 과학기술정진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새로 가입함으로써 전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마련된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부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과학기술자료공급, 보급체제로 더할 바 없이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료부지수출방법, 인민경제 부본별, 정종별정신장기구출발법, 전자발명체기구출발법, 기계언어프로그램 리용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70여 가지 책, 중앙기관의 과학기술보급공과 각 도의 과학기술보급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공업부문의 수석기생, 중앙기관에 부본별 과학기술자료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수년간의 단위가 과학기술정진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새로 가입함으로써 전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마련된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부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과학기술자료공급, 보급체제로 더할 바 없이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료부지수출방법, 인민경제 부본별, 정종별정신장기구출발법, 전자발명체기구출발법, 기계언어프로그램 리용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70여 가지 책, 중앙기관의 과학기술보급공과 각 도의 과학기술보급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공업부문의 수석기생, 중앙기관에 부본별 과학기술자료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수년간의 단위가 과학기술정진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새로 가입함으로써 전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마련된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부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과학기술자료공급, 보급체제로 더할 바 없이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료부지수출방법, 인민경제 부본별, 정종별정신장기구출발법, 전자발명체기구출발법, 기계언어프로그램 리용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70여 가지 책, 중앙기관의 과학기술보급공과 각 도의 과학기술보급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공업부문의 수석기생, 중앙기관에 부본별 과학기술자료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수년간의 단위가 과학기술정진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새로 가입함으로써 전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마련된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부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과학기술자료공급, 보급체제로 더할 바 없이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료부지수출방법, 인민경제 부본별, 정종별정신장기구출발법, 전자발명체기구출발법, 기계언어프로그램 리용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70여 가지 책, 중앙기관의 과학기술보급공과 각 도의 과학기술보급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공업부문의 수석기생, 중앙기관에 부본별 과학기술자료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수년간의 단위가 과학기술정진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새로 가입함으로써 전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마련된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부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과학기술자료공급, 보급체제로 더할 바 없이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료부지수출방법, 인민경제 부본별, 정종별정신장기구출발법, 전자발명체기구출발법, 기계언어프로그램 리용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70여 가지 책, 중앙기관의 과학기술보급공과 각 도의 과학기술보급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공업부문의 수석기생, 중앙기관에 부본별 과학기술자료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수년간의 단위가 과학기술정진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새로 가입함으로써 전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각지의 거의 모든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마련된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부본별, 지역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체계를 과학기술자료공급, 보급체제로 더할 바 없이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료부지수출방법, 인민경제 부본별, 정종별정신장기구출발법, 전자발명체기구출발법, 기계언어프로그램 리용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70여 가지 책, 중앙기관의 과학기술보급공과 각 도의 과학기술보급공과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공업부문의 수석기생, 중앙기관에 부본별 과학기술자료

# 온 나라를 들끓게 한 과학기술열풍

전국적범위에서 성과와 경험교환 활발  
올해에 창조된 과학기술성과들을 전신적으로 널리 보급하기 위한 과학기술전파대회, 발표회 등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나라는 과학기술열풍으로 세계를 들끓였다.

전국의 수많은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중심 등호로부터 도, 시(구역), 군(구역)를 비롯한 각급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수확자들이 제출된 제 33차 전국과학기술수확전 대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제 16차 국가발전경람회, 제 2회 전국보화성관람회(2018)와 같은 큰 규모의 전시회, 전람회 들뿐만 아니라 전직공급, 금속공업, 식전공업 등 인민경제 부본별과학발전대회, 제 5차 전국 3대혁명포교기술혁신전대회, 전국청년과학기술상관전시회, 전국로동계급과 직명원들의 기술혁신경람회, 제 18차 전국교육부본 프로그램전시회, 전국 과학기술수확전(2018) 등 수많은 전시회, 토론

대회, 기술강습, 보여주기사업이 성황을 이루며 광범히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새겨진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서 비롯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대외적으로 230여개 단위가 자력생성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동적과학혁신운동의 생활현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230여개 단위가 자력생성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동적과학혁신운동의 생활현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 실력으로 조국을 받들며

과학위학적소유자대렬 양성  
경제는 원수님께서 하위학위수여제도수립 일흔을 맞이한 올해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과학자들은 온 나라 박사들에게 수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80여명의 자연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박사의 영예를 지니었다.

이들중에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나라는 실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는 원수님께서 하위학위수여제도수립 일흔을 맞이한 올해에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80여명의 자연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박사의 영예를 지니었다.

이들중에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나라는 실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는 원수님께서 하위학위수여제도수립 일흔을 맞이한 올해에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80여명의 자연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박사의 영예를 지니었다.



관심과 기대를 모은 전국기술혁신경기  
공화국장건 일흔기념 4.15 기술혁신대회 전국기술혁신경기(이하 기술혁신경기)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전 전국기술혁신경기에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직, 금속, 화학, 기계, 식전공업 부문과 첨단기술부문의 수많은 단위에서 활동하는 수백대 4.15 기술혁신경기가 참가하였다.

경기기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원강철발전소, 2.8차 동정년관람, 남부청년과학연합기업소, 대안공기계별합기업소, 식정양기화학회 비롯한 참가단위들의 4.15 기술혁신대회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수확전 대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 (중략) ...

과학기술수확전 대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 (중략) ...



# 민족음악발전의 길에 새겨진 고결한 애국의 자욱

## 만수대에 예술단 지휘자였던 채기덕선생의 한생을 더듬어 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함같이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참된 문간들을 키웁니다. 주제 문학예술의 길에 전성기를 열어놓은

1970년대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가 알고 인민이 기억하는 재능있는 창작가, 예술가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었다. 우리는 이제 수십년세월 걸세위인들의 지도밑에 민족음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며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한 음악가의 고결한 삶의 자취를 전하려고 한다.

이 지휘하여 어머니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당정권을 민중화해 반영하고 그 형상에서 민족특색을 적극 살린 작품은 제기덕선생의 기념사건도 적지 않았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그후에도 그가 음악지휘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연을 여러차례 맡아주시었으며 인제인가는 무대에 오르시켜 그를 절세새우시고 출연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쁨을 나누어주시었다.

민족음악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지니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제기덕선생은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 민족음악의 위대한 스승을 모시며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1970년대에 만수대에 예술단 지휘자로 사업한 제기덕선생이다. 오늘날 그와 함께 예술활동을 벌여온 동시대인들은 음악무용사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서 민족관현악을 지휘하던 제기덕선생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민족음악을 불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있다.

공화국창건 10돌이 되는 해인 주체 47(1958)년에 창립되어 공연한 음악무용사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당의 평도법에 승리와 영광을 쉰채로 우리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간직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집체적역사와 열정의 산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음악무용사사시창조에 적극 기여한것으로 하여 제기덕선생은 어머니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어떻게 되어 민족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나.

제기덕선생은 1926년 이력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첫째 누나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다. 일제가 벌여놓은 공산탄에서 겨우 아버지를 만났지만 생활은 갈수록 초박해갔다. 그 시기에 제기덕선생에게 한가닥 뜻을 준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나 부르는 민요와 전라도 민요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으로 하여 오히려 소멸되었다.

조국강토를 갈망하다 못해 나중에 민족음악까지 없애려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품은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보원보원부소속이던 후순에 봉투박과 함께 우리 말을 끊어서 쓰고 이름도 폐용말로 고쳐서 마치고 맹세하였다. 그러던 그는 얼마동안살이내 일제의 정동에 끌려가게 되었다.

살인적인 고역에서 모른것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어떻게 되어 민족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나.

제기덕선생은 1926년 이력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첫째 누나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다. 일제가 벌여놓은 공산탄에서 겨우 아버지를 만났지만 생활은 갈수록 초박해갔다. 그 시기에 제기덕선생에게 한가닥 뜻을 준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나 부르는 민요와 전라도 민요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으로 하여 오히려 소멸되었다.

조국강토를 갈망하다 못해 나중에 민족음악까지 없애려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품은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보원보원부소속이던 후순에 봉투박과 함께 우리 말을 끊어서 쓰고 이름도 폐용말로 고쳐서 마치고 맹세하였다. 그러던 그는 얼마동안살이내 일제의 정동에 끌려가게 되었다.

살인적인 고역에서 모른것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제기덕선생은 주체 37(1994)년 9월 19일 내부수령강양보안부하로 제1기 졸업식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헌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군악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언질을 직접 듣게 되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 푸른 숲 우거질 그날을 위해

### 양덕군 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양덕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늘 가슴에 안고 사는것이 있다.

수십년전 심심산골인 양덕군 구지골을 찾으면서 황금산의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하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그날의 유혼을 한평생의 고귀한 지침으로 삼고 그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무성한 숲을 가꾸는 일에서 애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유산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산림복구전투 1단계기간에 이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평묘의 야외재배장에 자연호흡식 관수를 실현하고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한해에 나무모를 여러천 개 생산할수 있는 온실도 단단하게 일떠세울것을 비롯하여 양묘장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산으로 출몰하는 밤이 길어서야 산을 내려가곤 하였다.

오랜 세월 한모습인 그분 보며 사람들은 산림의 주인이라고 한사를 이기지 않았고.

나무사들물을 높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가 힘이 들더라도 천에서 나무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실수를 통하여 제정하고 있는 산림유전정책과 함께 숲사야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모비밀관리를 하고있었다.

해마다 밀거름을 듬뿍뿌려 주니 심은 나무씨앗들이 기운차게 자라났으며 나무규정의 차이에 따라 양묘장과 비료비를 치고 김을 잘 배주나 나무모들은 푸르스름이 자랐다.

이렇게 제정불이처럼 애를 써지 마나 나무모들을 산에 심을 때마다 그가 그려본것은 울창한 숲이었다.

이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향은 누구나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어있다.

피의 산림감독원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임무가 자식들의 어깨에 지워져있을

우를 무겁게 자각하고 헌신의 자취를 땀없이 새겨갔다. 그들은 인내력과 함께 자기 고장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정춘도 행동을 다 바쳤다.

양묘장건설과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산림복구전투의 성과가 자기들에게 많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어떤 나무모들에 정성을 기울여왔다.

지난 7월말 적지 않은 편적이 가을과제목을 입고 정장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이미 관수조제를 세워놓았지만 물량이 모자란다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나무모를 채워 넣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양덕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 그는 분조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잘 돌보아주며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인공의 본분을 다해나간다고도 이끌어주고있다.

인제인가 그는 한 분조원의 자식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며칠방을 밝히며 정성껏 간호해주었다. 뿐만아니라 분조에서 일하다가 눈코보장을 받은 로인들의 생활도 구석구석 보살피주었다. 하기에 분조원들은 피우며 농부들 우리 분조장이 아니라 우리들 우리들이다.

그들은 뜻깊은 열매에 많은 수고를 생낸 기쁨을 조금도 나누지 않고 헌신의 평범함을 바쳐가고있다.

로봉환선생 리 화철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제기덕선생은 음악작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음악에 대한 연구사업에 수십년동안 진행하였다. 그의 고집있는 노력에 힘입어 그날의 자취는 특별히 볼만 한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열정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